



스위스재보험, 2010년 1분기,  
순이익 미화 1억 5천 8백만달러 기록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로 손해보험 실적에 영향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http://www.swissre.com)

**2010년 5월 6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1분기** 미화 **1억 5천 8백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로 인해 손해보험 사업 실적이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사업은 견실한 실적을 보였다. **AA** 등급 초과자본은 미화 **12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리페(Stefan Lippe)는 “2010년 1분기 칠레의 지진과 유럽의 겨울폭풍 신시아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로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간사업은 견실한 실적을 유지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수익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고객을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업 모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미화 8억 달러 증가하여 262억 달러 기록**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1분기 미화 1억 5천 8백만 달러의 순이익, 미화 0.46 달러(0.49 스위스프랑)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에는 미화 1억 3천만 달러의 순이익, 미화 0.39 달러(0.45 스위스프랑)의 주당순이익을 기록했다.

2010년 1분기 자기자본은 미화 8억 달러 증가한 미화 2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미화 11억 달러에 달하는 채권에 대한 시가평가이익에 기인한다. 2010년 1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 동기 2.9% 대비 2.7%를 기록하였다.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에 발행된 전환사채를 제외한 보통주당 장부가액은 2009년 말 미화 66.2 달러(67.7 스위스프랑)에서 올해 1분기에는 68.6 달러(72.2 스위스프랑)를 기록했다.

스위스재보험은 2009년 말 이래 자본력을 강화해 왔으며 2010년 3월말 현재 당사의 **AA** 등급 초과자본규모가 미화 1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 손실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근간사업 유지

2010년 1분기 손해보험 사업은 전년 동기의 미화 8억 4천 6백만 달러에서 69% 감소한 미화 2억 5천 9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0년 3월 10일 발표된 바와 같이 칠레 지진으로 인한 미화 5억 달러의 보험금 지급 및 유럽의 겨울폭풍 신시아로 인한 미화 1억 달러의 보험금 지급 등 높은 수준의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 1분기 합산비율은 전년 동기 90.2%에서 109.4%로 증가했다.

### 2009년 1분기 미화 2억 4천 4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던 생명보험 사업은 올해 1분기에는 미화 2억 4천 5백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률은 87.4%로서 2009년 동기에는 86.9%를 기록했다. 2010년 1분기 스위스재보험은 전통 사업 부문에서 3.5%의 성장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 작년 1분기의 영업이익은 9억 7천 8백만 달러였으나 올해는 미화 9억 3천 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0년 1분기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2.8%였고, 전년 동기에는 1.9%였다. 올해 1분기 총투자수익률은 8.1%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동기에는 -7.1% 였다.

2010년 말까지 4억 스위스프랑의 내부경비 절감을 위한 조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우수한 2009 EVM 수익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EVM(Economic Value Management, 경제가치경영) 모델에 기초한 2009년 이익이 71억 스위스프랑임 도 함께 발표했다. EVM 모델은 스위스재보험의 통합 경제 측정 및 운영 체계로서 자사 사업계획, 가격결정, 실적유지 및 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2009년 EVM 보고서는 [www.swissre.com/investors](http://www.swissre.com/investors) 에서 참조할 수 있다.

### 딥워터 호라이즌 사고관련(Dep Water Horizon oil rig)

현재의 정보에 기반해, 딥워터 호라이즌 석유장비의 폭발사고 관련한 스위스재보험리의 잠정 손실 규모는 세전 2억 미국 달러로 추정된다. 스위스재보험은 동사고 관련 총보험손실규모가 15억에서 35억 미국달러 가량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현재 진행형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고, 최종손실규모는 변경될 소지가 있다.

## 향후전망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2010년 4월 특약갱신에서 스위스재보험은 수재보험료 규모 및 장기적인 가격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가 위험에 대한 인식 고취 및 가격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0년 7월 특약갱신에 대한 스위스재보험의 전망은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회사는 계속해서 능동적인 사이클 관리와 포트폴리오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전문성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손해보험연계증권(ILS)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장수 및 수명 관련 위험의 유동화 거래 시장 (Liquid Traded Market)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인 LLMA(Life & Longevity Markets Association)의 창립 회원사 중 하나로서 생명재보험 업계의 시장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2010년 1분기 유럽의 폭풍관현 산업손실 지수인 PERILS에 연동한 최초의 자연재해 채권을 구조화함으로써 ILS 시장에서 자사의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리페는 “원수 보험 시장에 매출 및 가격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재보험 시장의 경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체계적인 언더라이팅에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 12%의 자기자본수익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종목에 자본을 투하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